

골잡이 박기동이 돌아왔다

광주 FC '초대 캡틴' 부상서 탈출
 "돌풍 재점화... 8강 목표 이루겠다"



부상에서 돌아온 광주 FC 공격수 박기동이 '장신군단'의 중심에서 팀의 8강을 노린다.

〈광주 FC 제공〉

광주 FC의 '초대 캡틴' 박기동이 돌풍 재점화의 중심에 선다. K리그 막내 광주가 그라운드에서 첫 발을 내디뎠던 2011년 3월 5일, 주장완장을 차고 있던 박기동은 후반 6분 헤딩슛으로 대구의 골문을 가르며 역사적인 팀의 창단 첫 골의 주인공이 됐다. 이 골을 시작으로 데뷔 첫해 3골5득점을 기록한 박기동은 초대캡틴이라는 막중한 임무까지 겸하며 시민구단 창단 최다승(9승)을 이끌었다.

올 시즌에도 박기동은 광주의 핵심 전력이었다. K리그 최장신(201cm) 복이 가세하면서 191cm인 박기동은 김동섭(188cm)과 함께 위력적인 장신군단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왼발 중족골 부골 제거 수술을 받느라 박기동은 전력 외 선수가 됐다. 뼈를 깎아낸 박기동은 관중석에 앉아 그라운드를 누비는 동료들과 광주의 돌풍을 지켜보아야 했다.

박기동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처음에는 내 상황이 너무 답답했다. 지금은 괜찮아졌다. 팀이 잘나가는데 같이 하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경쟁자로서 의식이 되는 부분도 있었다. 동료이지만 선수로서 경쟁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

힘겨운 재활의 시간을 보낸 박기동은 지난 5일 대구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30분 김동섭과 교체해 들어가면서 마침내 그라운드를 밟았다.

박기동은 "6월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그라운드에 오르게 됐다. 어떨떨하니 뭔가를 생각한 거들도 없었다. 특별한 활약을 하지 못해 아쉽지만 다시 경기를 뛸 수 있다는 자체로 기분이 좋다"고 복귀 소감을 밝혔다.

뭔가를 보여주기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귀 자체만으로도 반가운 박기동과 광주다. 돌풍이 주춤하면서 승리가 간절한 광주는 박기동의 투입과 함께 본격적인 장신군단의 진용을 갖추게 됐다.

또 지난해에 비해 경험은 더해졌고 부담은 덜해졌다. 올 시즌 박기동은 김은선에게 주장완장을 물려주며 마음의 짐을 덜었다.

박기동은 "팀적으로는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그런면에서 마음이 홀가분하기도 하다. 아직 100%가 아닌 만큼 최대한 컨디션을 빨리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상에서 탈출한 박기동의 우선 목표는 팀의 8강이다.

박기동은 "팀의 공격수로 골을 넣고 포인트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팀이 8강에 오르면 좋겠다. 팬들의 격려와 성원이 있어서 초반 팀이 잘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선수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8강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팬들의 응원을 부탁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근대 5종 남자대표팀 사상 첫 세계선수권 금메달

근대 5종 광주대표인 황우진이 한국에 사상 첫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안겨줬다.

황우진·정진화(이상 한체대), 홍진우(경기도청)로 구성된 한국 근대 5종 남자대표팀이 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2012 세계선수권대회 첫날 남자 계주에서 6230점을 획득, 독일(6208)과 러시아(6194)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52회째를 맞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근대 5종의 간판 이춘현(32·LH)이 지난해 중국 청두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건데 이어 황우진이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10살 터울의 광주체고 선후배가 나란히 한국 근대 5종의 역사를 새로 썼다.



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2012 세계선수권대회 남자계주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국대표팀 선수들이 금메달을 입에 물고 기뻐하고 있다. 〈국제근대5종경기연맹 제공〉

2010년 싱가포르 유스올림픽에서는 전남계고 출신의 김태범(20·한체대)이 한국의 근대 5종 국제대회 첫 개인전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에닝요 태극마크 달까



브라질 출신 K리거... 월드컵 본선행 이끌 카드

축구협 특별귀화 추진 체육회 거부로 '불투명'

대한축구협회가 K리그 전복 현대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하는 에닝요(31)의 특별귀화를 추진한다.

내달 시작되는 2012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하기 위해서다.

이원재 축구협회 홍보국장은 9일 "최강희 대표팀 감독의 요청과 본인의 뜻에 따라 에닝요의 특별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법무부에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중연 축구협회장은 조만간 권재진 법무장관을 찾아가 에닝요의 특별귀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출신인 에닝요의 특별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는 최초의 축구선수가 된다.

지금까지 K리그에는 신의손 등 귀화선수가 몇 명 있었지만 이들은 원래 국적을 포기하는 일반(완전)귀화 절차를 밟았다.

또 에닝요가 태극마크를 달면 최초의 외국인 출신 국가대표 축구선수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

체육계에선 2010년 5월 분야별 인제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한 새 국적법이 시행되면서 특별귀화 방식으로 4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함께 취득했다.

남자프로농구 문태종(전자랜드)·문태영(모비스) 형제, 여자프로농구 김벌리 로빈슨(삼성생명), 화교 3세인 쇼트트랙 공상정(원촌중)이다.

이 국장은 "다문화 가정이 많아진 우리나라의 환경도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에닝요의 특별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일이

빨리 진행되면 2012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부터 국가대표로 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3년 수원에서 K리그에 데뷔한 에닝요는 브라질로 돌아갔다가 2007년부터 2년간 대구에서 뛰고 2009년부터 전북에 몸담았다.

한국에서 5년 이상 연속으로 활약하며 귀화조건을 갖춘 그는 7번째 시즌을 치르는 K리그 173경기에 출전해 66골 48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주말 열린 K리그 11라운드에선 베스트 미드필더로 뽑혔다.

에닝요는 지난 1월 브라질에서 진행된 전북의 동계훈련 때부터 귀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그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강희 감독이 원한다면 귀화해서 한국 대표팀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최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그 생각이 아주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닝요의 특별귀화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별귀화 신청과 관련해 체육계를 대표해 추천권을 쥐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지난 7일 법제상법위원회를 열어 에닝요가 아닌 공격수 라돈치치(30·수원)를 추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중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애초 축구협회는 라돈치치와 에닝요 두 선수의 특별귀화를 추천해 달라고 했다"며 "국내 스포츠계 보호와 선수 포지션 등 제반 여건을 심사한 뒤 한 사람을 골라 라돈치치를 추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그러나 라돈치치는 일본에 5개월가량 임대된 적이 있어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귀화하더라도 최종 예선 네 경기를 뛸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축구협회가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라돈치치의 추천신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스포츠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순수 외국인 선수들의 특별귀화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일단 탈락한 에닝요가 추천을 받으면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31일 스위스에서 강호 스페인과 평가전을 한 뒤 내달 8일 카타르 원정을 시작으로 카타르, 이란, 우즈베키스탄, 레바논 등 4개국과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내년 6월까지 최종 예선을 치른다.

한국이 8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무난히 진출하려면 최종예선에서 최소한 조 2위를 확보해야 한다.

연합뉴스

6월12~14일 빅센전 등

KIA 경기 일정 변동

KIA의 경기 일정이 변동됐다.

7월24일부터 26일까지 목동구장에서 열린 예정이던 넥센 원정 경기가 청룡기 야구대회 개최 관계로 무등경기장으로 옮겨 진행된다. 대신 6월12~14일 잡혀있던 광주 홈경기가 목동 원정경기로 치러진다.

또 무등경기장으로 편성된 LG와의 3연전(6.15~17)과 삼성3연전(8.28~30)등 6경기가 연고도시 외 지역 팬서비스를 위해 군산 월명야구장에서 개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_ 062 - 221 - 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